

욥기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 막간 28장

존 월튼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욥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의 막간 챕터 28입니다.

검토 [00:25-1:54]

이제 우리는 이 막간 장, 28장에 있는 지혜에 대한 찬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곳을 조금 검토하여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대화 섹션이 완료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끝냈습니다.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욥은 새로운 혜택에 대한 기대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복원칙이라는 제도가 무너졌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것은 대화의 시리즈 2였습니다. 그는 재난의 원인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대화에서 시리즈 3, 사이클 3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책을 수호하는 별 증인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그분은 사심 없는 의로움과 같은 것이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인에게 상을 주는 하나님의 정책이 비생산적이며 심지어 전복적이라는 도전자의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챌린저 사건을 변호했던 친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지혜에 찬송가(욥기 28장) - 내레이터의 중단 [1:54-2:47]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혜 막간을 통해 담화 섹션으로 전환합니다. 28장,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책의 구조를 논의할 때 28장은 실제로 다른 화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욥이 계속 말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언급했듯이 문제는 28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전이나 이후에 표현된 욥의 실제 관점을 전혀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종의 휴식을 주고 우리를 다른 사고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내레이터의 작업이라고 본다 .

욥기 28장의 구조, 지혜의 찬가 [2:47-3:46]

그래서 2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채광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 삽화의 기본적인 추진력은 채굴이 숨겨진 것을 밝혀낸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에 관한 수사학적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지만 가치를 넘어서고 인간의 노력과 독창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주적 논의이며 이에 대한 수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의

마지막 부분인 20-28절에서는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 지혜와 질서의 결합 [3:46-5:02]

그래서 어떤 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우선, 지혜는 28:12에서 찾을 수 없지만 28:20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소스에서 찾으려는 검색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혜는 우주 구성 요소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질서 사이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사실입니다. 지혜는 질서를 추구하고 질서를 인지하고 질서를 실천할 때 발견된다. 질서 있는 세계,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사회는 모두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우주 구성 요소의 순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서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창조의 토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진행 중인 작업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 정의 초점, 하나님 지혜 초점 [5:02-7:01]

욥과 그의 친구들은 우주의 질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원칙은 그들의 운영 이론입니다. 그 등식에서 의인은 번성할 것입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세상이 정돈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하나님]가 지혜를 보시고 판단하시며 확증하시고

시험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의 기준으로 창조를 승인하신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보응의 원칙을 질서의 근본으로 삼으려 했을 때, 그들은 공의를 우주의 질서의 근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신의 이 문구는 그것을 뒤집어서 말합니다. “아니요, 기초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는 지혜를 보고 평가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지혜의 기준으로 창조물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다른 관점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사용했던 방정식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주인공 욥의 친구들은 모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설을 통해 대화를 돌이켜 보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논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8:18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7:01-7:26]

28절은 설정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인류에 대한 지시야, *아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리고 그가 인류에게 말했다,” 이것은 NIV입니다. “그가 인류에게 이르시되 [그는 *아담* 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대조됨 [7:26-8:49]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무엇과 대조되는지 생각해 보면 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초연하고 따라서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을 제한적이거나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여 경멸할 대상과 대조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이 부패한 분이므로 훈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근시안적이며 따라서 충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여 분개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다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도나이[주, 주]를 두려워함[8:49-11:28]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할 때 야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도나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 흥미로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엘로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도나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책에서 아도나이의 유일한 등장입니다. 히브리어로 Adonai는 인간이든 신이든 상관없이 권위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훼에 대한 칭호로 자주 사용되지만 야훼 자신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샤다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엘로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도나이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입에 놓여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어디에도 하나님은 단순히 아도나이라는 칭호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어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텍스트를 분석할 때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단어 선택이 의미 있고 의도적이며 목적이 있다고 가정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이제 다시 아도나이가 권위의 쟁점을 끌어낸다. 그것은 주님이나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의 요소를 끌어낸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비슷한 말씀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길로 신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관사가 있는 정관사는 12절과 20절 모두 “지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악을 피하라”는 윤리적 권고와 병행됩니다. 의식 준수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 28장의 수사학적 역할 지혜 찬가 [11:28-13:08]

그렇다면 28장의 수사학적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은 우리를 대화에서 담론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기계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의인에게 형통함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 도전자의 주장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좋은 정책이 아닌 욥의 주장으로 넘어가고, 2부에서는 욥의 주장을 다룰 예정이다.

셋째,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지혜의 근원으로 그리고 방정식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로 책을 이동시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혜를 배제했습니다. 그들이 질서를 이해하면서 정의에 관한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지혜에 관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욥은 도전자의 의심과는 반대로 사심 없는 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욥의 도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질문은 욥의 도전과

연결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질문이 사심 없는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던 챌린저호의 주장과는 대조적입니다.

의로운 고통과의 일관성? [13:08-13:50]

여기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할 때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욕이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의 기대가 상황이 진행되는 방향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십니다. 일관성에 대한 친구들의 인식이 결함이 있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의 조언을 따른다고 해서 욕의 세계에 일관성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질서와 일관성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혜/질서의 근원/저자이신 하나님 [13:50-15:06]

하나님은 질서의 창시자이시며 일관성의 기초이시지만, 하나님 자신만이 일관성이 있거나 질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지혜를 발휘하셨지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이 어떤 외부 기준에 따라 그를 어떻게든 우발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현명하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신은 현명하다, 신은 선하다, 신은 거룩하다 등의 확언은 형용사 자체가 실제로 신 안에서 정의를 찾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지혜는 그분 안에 기초가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이 지혜이시거나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로 표현된 두려움 [15:06-16:05]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편하고 혼란스럽더라도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큼 그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의 정당한 본성은 공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정의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좋은 방법, 즉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설정했다고 믿습니다. 타락으로 무너진 제도의 결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시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기 28장의 의의에 대한 결론 [지혜 찬송] [16:05-16:44]

28장은 이 책의 핵심 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수집하기 위해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 역할과 따라서 수사적 역할을 하지만 책이 제시해야 하는 신학적 메시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Dr. John Walton과 율기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세션 17, 대화 시리즈의 결론, 지혜 막간 28장입니다. [16:44]